

## 싱가포르의 인권 침해

지 순 후안  
싱가포르민주당 사무총장

싱가포르에서의 정치적 상황에 대해서 들은 외국인들의 대부분의 반응은 “나는 상황이 그렇게 나쁘지 몰랐다”는 것이다. 이는 내가 외국인으로부터 듣는 전형적인 반응이다. 억압, 공포는 외국인이 쉽게 떠올릴 수 없는 이미지이다. 섬 위의 깨끗하고 효율적인 모든 것을 보여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항을 둘러본 기쁨을 가진 사람들은 이 나라에서의 권위주의적 통제의 범위를 믿기 어렵다.

남쪽으로는 인도네시아 군도와 북쪽으로는 말레이시아 반도 사이에 위치한 도시국가는 아시아에서 가장 민주적으로 도전을 받는 국가 중의 하나이다. 집권당인 국민행동당(People's Action Party : PAP)의 통제와 위협의 방법이 이 글에서 다룰 토론의 주제이다.

### 반대를 제거하기

국내보안법(Internal Security Act : ISA)으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식민지 지배기에 영국에 의해서 도입된 ISA 또는 과거에는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Ordinance라고 불렸던 법은 정부가 공적인 안전에 위협을 끼칠 것으로 의심되어지는 시민에 대하여 일방적인 구속과 무제한의 억류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한 막대한 힘을 가진 정부는 그것을 반대세력에 적용할 유혹에 빠지게 한다. PAP는 물론, 그 유혹을 저항하기 힘들게 되었다. 그래서 1963년 2월에 의회의 야당 의원, 신문의 편집자, 노동지도자, 다른 정치적인 지도자 등 150여명에 대한 구속을 명령

했다. 구속된 사람들 중 대부분이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역해야 했고, 일부는 20년까지 지속되었다.

가장 최장으로 억류되어 있던 사람은 차아 티에 포(Chia Thye Poh)였다. 1966년 숙명적인 날에 안전요원이 차아를 방문했다. 그리고 국내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고 말했다. 이 야당의 의원은 이후 23년 동안 수감되었고, 석방된 후에도 그는 싱가포르 섬 남쪽으로 유배되었다. 그리고 단지 낮 시간에만 본토에 오는 것이 허용되었다.

국내보안법 적용은 60년대와 70년대 내내 계속되었다. 1963년에 구속된 포 수 카이(Poh Soo Kai)는 그가 ISA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는 캠페인을 시작한 때인 1972년에 석방되었다. 결과적으로 PAP가 회원조직으로 가입하고 있었던 국제사회주의자(Socialist International)는 PAP를 회원 대열에서 탈퇴시키려 발의했다. 그러자 이를 간파한 PAP는 1976년에 스스로 조직화 작업을 멈췄다. 이러한 사건이 있는 지 일주일 후에 포는 재구속되었다. 그는 6년 후에 석방되었는데, 독방에서 2년을 지낸 후였다.

1987년에 싱가포르 정부는, 정부를 폭력적으로 전복하고 맑시스트 국가를 건설하려고 모의한 22명의 개인을 구속, 억류했다고 발표했다. 구속된 일부인사는 야당에 협력했었고, 일부는 가톨릭 노동자로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고, 다른 사람들은 학대를 받은 해외의 가사노동자들을 도운 변호사들이었다. 1년 동안 구속되어 있는 동안 그들은 주먹으로 구타를 당하고, 뺨을 맞고, 잠을 자지 못하는 등의 무자비한 고문을 받아야 했다. 수감자들은 그들의 의사와 반대되는 것을 강제적으로 자백해야 했다.

그들은 석방이 되자마자 일부는 함께 모여서 기자회견을 열어 성명서를 발표했다. 그들의 무죄를 알리고, 그들이 고문과 학대를 받지 않았다는 정부의 주장을 비난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들은 즉각적으로 재구속되었고, 그들의 자유를 되찾기 위하여 그들이 성명서를 부인하는 제정법상의 선언을 하여야 했다. 향후 그들이 정부를 다시 부인한다면, 그들은 잘못된 법정선언을 한 것에 대해서 법정에서 판결을 또 받게 될 것이다.

9.11의 비극 이후에 최근에는 37명의 사람들이 국내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테러리스트 네트워크에 연결되었다는 혐의와 싱가포르내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고 모의를 했다는 혐의였다. 몇 명은 석방되었으나 대다수는 재판도 받지 않은 채 감금되어 있다.

## 언론의 문제

물론, 위에 말한 것 중 어떤 것도 언론의 종속이 수반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것이다. PAP가 1959년에 집권한 이후에 싱가포르에서 언론의 자유를 없애는 작업을 시작했다.

신문사에 의해서 국제담당 컬럼니스트로 고용된 미국시민은 신문사에서 해고된 때인 2004년에 다음과 같이 말해야 했다 :

스트레이트 타임즈는 싱가포르에서 경쟁력이 없다. 싱가포르 프레스 회사(Singapore Press Holdings)라고 불리는 기업이 전체적으로 소유하고 있었다. 그의 주식은 공개적으로 상장되었으나, 신문의 업무는 수상인 리 시엔 룡(Lee Hsien Loong)에 의해서 철저히 감독된다. 리 시엔 룡은 싱가포르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리 관유(Lee Kuan Yew)의 아들이다. 이 신문은 저널리즘에 대한 경력이 없는 편집장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직속 편집장은 30대 중반의 여성인 추아 리 흥(Ms Chua Lee Hoong)이었는데, 그녀는 정보기관원이었다. 그리고 다른 주요한 편집장도 싱가포르의 관료체계와 국가의 보안담당 관련 기관의 출신이다. 그들은 모두 국가의 정보기관과 연결되어 있다. 그것들은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추적한다.

현재 싱가포르의 현지 프린트물 언론은 싱가포르 프레스사(Singapore Press Holdings)와 MediaCorp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 회사는 직접적으로 국가의 통제하에 있다.

방송언론의 역사는 평온한데, 그것은 확고하게 처음부터 정부의 통제하에 있기 때문이다.

호된 훈육과정을 통하여 싱가포르 국내의 언론을 성공적으로 길들인 후에 싱가포르 정부는 해외언론에 대한 작업을 시작했다. 하나씩 PAP와 그 정치에 대해서 비우호적인 논평을 하는 지역과 국제적인 신문을 값비싼 명예훼손 소송 또는 형사사건으로 법정에서 세우고 있다. Asiaweek, Far Eastern Economic Review(이 둘은 기능이 정지되었다), Asian Wall Street Journal, Tim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Economist, Newsweek 등은 그러한 운명을 맞았다. 공격적인 출판물에 대해서 취해진 다른 규제조치는 싱가포르에서의 배포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다.

1999년에 나는 CNBC, CNN과 로이터와 인터뷰를 했다. 이 인터뷰 이후에 정부는 이들 방송국에게 싱가포르로부터 방영되는 해외TV방송국은 싱가포르 방송을 통제하는 기준과 규칙을 똑같이 지켜야 한다는 경고를 줬다. 이것은 물론 정부의 승인 없이 공개적으로 행한 내 발언을 지칭한 것이었다. 이것이 내가 아래에서 상세하게 말할 문제이다.

직후에, 싱가포르의 국내정치에 관련되는 부문에 대해서는 국제신문에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해외 방송사를 기소할 수 있도록 싱가포르 방송법을 개정하였다.

그때 이후로, 싱가포르의 민주화운동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나 또는 해외방송국으로부터 싱가포르의 정치에 대한 보도는 거의 없었다.

싱가포르 정부의 언론탄압은 미디어의 계속되는 억압에 대해서 PAP를 비난하는 국제적인 미디어 감시그룹을 낳았다. 언론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각국 정부를 순위로 평가하는 조사에서 ‘국경없는 기자들(Reporters Without Borders)’은 싱가포르를 167국

에서 147 번째로 순위를 매겼다. 이것은 미얀마보다 18위가 높고, 이라크보다 한 단계가 높은 수치이다. 그리고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다.

사실상, ‘국경없는 기자들’은 전 수상, 고촉통(Goh Chok Tong)에게 ‘언론자유 약탈자상’을 주었다. 이 상은 정부의 계속되는 언론 억압에서 그의 역할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서, 무아마르 가다피, 로버트 무가베, 김정일, 피델 카스트로도 함께 수상되었다. 또 다른 미디어 그룹인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는 다음과 같이 썼다:

싱가포르에서의 미디어에 대한 국가통제는 완벽해서 그 체계를 감히 도전할 수 없다. 그래서 더 이상 구속하거나 언론인을 학대할 필요가 없다. 해외의 통신원들은 싱가포르에서 보고할 때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배운다. 정부가 종종 국제 언론을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드는 명예훼손 소송을 직면하게 하여 그 활동을 정지시키기 때문이다.

### 독재권에 대한 투표?

PAP는 1959년 처음 집권한 이후로 선거에서 매번 이겼다. 야당은 1968년에 의회를 거부했다. 정부가 1년 이상 의회 회기를 주는 것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집권당이 기회를 잡고 교묘하게 선거를 조작해서 1970년대의 전체 의원 중 야당의원은 한명이 없었다. 현재 84명의 하원에서 단지 2명의 야당 의원이 있다.

독립적인 선거위원회가 없다; 선거담당 부서는 수상의 직속에 속한다. 캠페인 기간은 9일 동안 지속된다. 1997년 선거가 선언되기 하루 전에 선거구의 확정을 공고했다. 2001년에는 정부가 투표자에게 투표 전날에 현금화할 수 있는 주식을 주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지난 선거에서 야당은 의석의 반 이상을 차지할 후보자를 내세울 수 없었다. 그래서 PAP가 첫 번째 투표가 있기도 전에 권력에 재집권하는 셈이 되었다. 프리덤 하우스(Freedom House)는 가장 극명하게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싱가포르 시민은 그들의 정부를 민주적으로 변화시킬 수 없다.’

싱가포르인들이 선거에 참가하는 것에 그렇게 공포스럽게 만드는 한 요소는 PAP에 의한 명예훼손법이다. 사법권은 집권당의 일부분이라고 인식되는 것이다. 그들이 PAP 지도자에 의해서 제기된 명예훼손 소송에 따르는 손해로 인한 돈을 지불할 수 없었을 때에는 몇몇의 반대당 지도자들은 파산상태가 되었다.

고참 야당인사인 조수아 B. 제야르트남(Joshua B. Jeyaretnam)은 리 관유와 다른 PAP 소송 제기자에게 수백만달러를 지불했다. 전 판사 제야르트남은 그의 집과 거의 모든 재산을 팔아야 했다. 2001년 1월에 그는 파산선고를 당했다. 왜냐하면 그가 여전히 그의 반대자에게 지불해야 될 수십만 달러를 지불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적 환경에서는 그는 의회에서 의원직을 잃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있을 선거에의 참여가 금지당할 것이다.

탕 리양 홍(Tang Liang Hong), 성공적인 기업변호사이면서 1997년에 야당후보자였던 그는 공개 선거유세에서 PAP 지도자에 대하여 그가 한 발언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소송을 당했다. 선거가 끝난 후에 탕은 나라를 떠났다.

2001년에 리관유(Lee Kuan Yew)와 고촉통(Goh Chok Tong)은 나에게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다. 수하르토가 전복되기 전인 1997년에 수하르토 체제에 대한 싱가포르의 비밀스런 대출행위에 대해서 내가 질문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변호사로 외국변호사를 선임했으나 법정에서 거절당했다. 나는 분명히 나를 대표할 국내변호사를 찾을 수 없었다고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당했고, 리관유와 고촉통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했다. 이 재판은 나에게 나를 변호하고 증언을 요청할 공개재판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짧은 판결서만이 주어졌고 원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났다. 이 글을 쓰고 있는 동안, 나에게 원고는 손해에 대한 보상금으로 미화 500,000달러를 요구했다.

이것이 나에 대한 첫 소송은 아니었다. 1993년에 나는 싱가포르 대학으로부터 해고되었는데, 내가 야당에 참여하고 선거에서 경쟁한 지 3개월 후였다. 나는 또한 소송을 당했다. 나의 해고는 정치적인 동기라고 내가 말했기 때문인데, PAP의 하원의원인 내가 속해있던 대학 학과장으로부터 명예훼손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비용과 보상금이 약 300,000달러였다.

이러한 시나리오 때문에 국제적인 법조계는 싱가포르의 재판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논평하였다 :

민사적 명예훼손 소송은 행정부에 의해서 위협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싱가포르인이 반대의견을 갖는 것을 막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회

(명예훼손 소송은) 국가의 집권당인 PAP의 이해에 복무하는 기관으로서의 사법부의 불명예를 극복하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 국제법률가 위원회

결국 나타나는 현상은, 정치적인 이해를 위하여 법의 규칙을 기꺼이 죽이는 정부이다. 변호사들은 수동적이 되고, 판사들은 감시를 바짝 받고 있다. 그리고 법은 조종된다. 그래서 개인을 향한 정부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는 체계에서 커다란 구멍이 존재한다. - 뉴욕시의 변호사 협회

## 노동자들의 고통

정부가 국내보안법(ISA)을 노동활동가를 구속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한 1960년대 이후로 PAP는 노동조합에 대한 무자비한 캠페인을 시작했다. 싱가포르에서는 저임금

과 해고된 노동자에 대한 실업보험을 규정한 법이 없다. 결과적으로 싱가포르 노동자 특히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열악한 임금을 받는 층에 상대적으로 속한다. 사무실 청소부나 운전사의 중간급 정도의 임금은 生産性에 조정되어서 세계 가장 낮은 59개국 그룹에 속한다. 단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에쿠아도르만이 덜 받는다. 비서들도 많이 받지 않는다. 그들의 임금은 59개국 중 50위에 속한다.

이런 모든 것이 다음과 같은 것이 일어나는 곳에서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즉 장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월급을 받는 곳이다. - 내각 장관은 미국의 대통령보다 더 받는다. 그리고 수상은 미국 대통령, 영국의 수상, 프랑스의 대통령, 이태리의 수상, 독일의 총리의 월급을 합친 것보다 더 받는 곳이다.

### 자유 억제

리관유는 시민에게 자유롭게 모이고 말할 자유를 허용하는 것은 아수라장을 만들 것이라고 주장한다. 결론적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어떤 종류의 집회도 금지된다 : 싱가포르에서 미국대사관 밖에서 모이려고 했던 6명이 모임 장소에 가기도 전에 구속되었다. 아시아 활동가 사이에 버마에 대한 상황을 의논하기 위한 포럼은 금지되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의 근절을 위한 유엔의 국제기념일을 기리기 위해서 행진을 하려던 신청은 거절되었다. 싱가포르 언론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한 Think Center라는 NGO에 의한 요청도 거절되었다. 동성애자 이슈를 의논하기 위한 포럼도 불허되었다.

1999년에 나는 점심시간에 래플스 플레이스(Raffles Place : 싱가포르의 경제심장부)의 중간에 서서 군중을 대상으로 연설을 하였다. 나는 다음 주에도 그 행사를 반복했다. 나는 두 가지 행동으로 기소되고 수감되었다. 2002년에 나는 대통령 저택과 수상의 관저가 있는 이스타나 외곽에서 노동절 행진을 하려고 시도했다. 경관들이 나를 환영하기 위하여 가까이 있었다. 그리고 내가 연설을 하기 전에 나를 멀리 끌고 갔다. 나는 다시 기소되었다. 그리고 5주 동안 수감되었다.

시민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모임을 조직하는 것을 막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영상물을 제작하고 배급하고 상영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너무 두려워서 공개적으로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다. 정치적인 사회가 작동하는 이미 제한된 공간은 점점 더 죄어오고 있다.

### 인터넷 차단

인터넷이 권위주의 체제를 해방하는 커다란 힘이 될 수 있다는 사례는 많다. 편리하게 전자적 수단을 통한 정보의 흐름을 정부로서는 검열로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어렵다. 비록 불가능하지는 않는다해도.

정당, 종교단체와 그 외 조직이 웹사이트를 만들기를 원하면 싱가포르 방송위원회(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 SBA)로부터 허가를 처음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1996년 정부는 명문화했다. 이것은 분명하게 ‘반대할만한 내용’이 인터넷 공간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반대할만한’ 단어들은 의도적으로 막연한 상태로 남아 있다. 공적인 사용으로 맞는지 맞지 않는지에 관하여 결정하는 것은 정부가 한다. 싱가포르 민주당(SDP)이 후보에 관한 정보와 이력을 알리기 위해서 웹사이트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1996년 중반에 열린 총선 기간 동안 왔다. SDP는 SBA로부터 즉각적으로 공격적인 웹사이트를 없애라는 편지를 받았다. 2001년에 정부는 선거기간 동안 정당에 의한 인터넷의 ‘책임 있는 사용에 관한 가이드를’ 하는 새로운 규칙을 발표했다.

종종, 정부가 인터넷 사용자의 활동을, 특히 뉴스그룹과 대화방, 추적하는 가능성에 관한 분노의 표현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메시지는 다른 사용자에게 다음과 같은 경고를 한다. 정부에 관해서 불이익한 정보를 제공한 것 또는 비난적인 논평을 한 것 때문에 당국에 의해서 글을 쓴 사람들이 심문을 받고 박해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이러한 메시지의 진실성이 확인되기 어렵다. 동기조차 의문시 된다. 글쓴이들은 친정부 인사 또는 단체일 수 있다. 네티즌 사회에 두려움을 심어주고 자체 검열을 촉진하기 위한 의도이다.

2003년에 경찰관 두 명이 인터넷 활동가의 집을 습격했다. 그리고 그들의 컴퓨터파일을 압수했다. Mod Zulfikar와 Robert Ho는 각각 리관유와 그 가족이 정부가 운영하는 사업의 주요직에 임명된 것에 대한 내용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후에 경찰은 Zulfikar을 형사적인 명예훼손 혐의로 조사 중이며, 그리고 그 범죄는 최대 2년 감옥형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발표했다. Zulfikar는 싱가포르를 떠나서 호주에서 정치적인 망명지를 찾고 있다.

## 결론

싱가포르가 국제적인 인권 레이더 망에 자주 걸리지 않는 이유 몇 가지 중 하나는 PAP의 훌륭한 여론캠페인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싱가포르와 같이 기술적으로 현대적인 도시에서 정치적인 발전이 그렇게 원시적이라는 것을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아시아 인권조직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싱가포르처럼 인권에 관한 국제사회의 레이더망을 피해가는 나라는 거의 없다. 많은 면에서 서구 스타일의 국가, 번영된 싱가포르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양심적 병역거부나 사형제도에 대한 언급이 가끔 있을 뿐이다. 아시아의 이웃 국가들이 NGO와 국가의 공격을 받는 동안에 싱가포르

대표들은 거만하게 앉아있다. 싱가포르의 상황은 이웃나라와 비교해서 결코 양호하지 않고, 많은 면에서는 더 열악하다. 아시아의 쿠바(그러나 결정적인 빈곤이 없고 경제적인 제재가 없는)이다. 실제로 싱가포르는 서구스타일의 경제적인 번영을 즐기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가 싱가포르에서 제공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논쟁이 없다. 싱가포르에서의 시민·정치적 권리의 부정은 정부의 정책이다.

원인이 무엇이든, 국제사회가 고립된 국가(island-republic)에 더 많은 관심을 제공하는 것은 중요하다. 독재적인 지도자를 둔 개발도상국들은 싱가포르를 권위적인 통제에 대한 어떠한 붕괴도 없이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모델로서 생각한다. 예를 들어, 중국의 지도자는 싱가포르 방식에 찬탄을 보내고 있다. 그 생각은 백성을 배부르게 하되 머리는 텅 비게(the people's stomachs full and heads empty)하는 오래된 이상에 기초하고 있다. 만약 시민들이 돈을 버는데 계속 바쁘다면, 그들은 그 외의 것을 할 시간이 거의 없을 것이다. 정치에 관여하는 것을 포함해서.

경제적인 파열은 싱가포르에서 막 시작되고 있다. 만약 다른 나라에 일어난 슬픔을 피하길 원한다면, 싱가포르에 있는 우리와 국제사회의 사람들이 함께 도시국가에서의 정치적 결점과 인권침해에 대해서 해결할 더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이 현명하다.



## 아시아의 민주주의를 촉진하고 심화시키기 위하여 - 그 취약점과 도전에 관한 분석

어떻게 아시아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할 것인가에 관한 주제로 열린 회의들은 적지 않게 많았다. 많은 아이디어와 제안이 점검되었었다. 불행하게도 이후의 행동이 따라지지 않았다. 아시아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부족한 편이다. 아시아 전체의 민주주의의 힘은 개별 아시아국가의 민주주의 힘이 강해야만 마찬가지로 강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적 민주주의에 대한 토론은 반드시 개별국가를 민주화되는 것을 도와야 한다.

이것 때문에 네트워크가 중요한 것이다. 단독적으로 각 국가가 큰 범위에서 민주주의를 촉진할 수는 거의 없다. 그렇지만 (이 회의와 같은) 집단적으로, 지역에서 온 민주주의자들이 일을 같이 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다. 자원을 모으는 것도 역시 우리의 노력을 증대시킬 수 있다. 결국에는 아시아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한 동맹(the Alliance for Reform and Democracy in Asia: ARDA), 민주주의적인 열정을 가진 아시아인들의 지역적 모임은 각 국가의 특수한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지역적 활동적 차원에서 일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가지고 있다.

그래도,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의 방대함을 생각하면, 어떠한 조직도 홀로 활동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희망할 수 없다. 자매네트워크와 조직과의 협조는 중요하다. 결국, ARDA는 대만민주주의 재단(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과 대안아세안(Alternative Asean), 국제적대화를 위한 제안(Initiatives for International Dialog)과 아시아민주주의포럼(Forum Asia Democracy)과 함께 아시아의 민주화를 위한 세계포럼(the World Forum for Democratization in Asia; WFDA)을 조직하기 위하여 일을 해왔다. 이 포럼은 타이페이에서 2005년 8월에 열릴 예정이다. WFDA는 많은 다른 회의와 달리 다양한 아시아국가에서 실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만들 것이다. 자원을 코디네이트하고 회의에서 만들어진 목표를 성취하는 데 할당될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앞으로의 계획을 위한 그의 가

능성과 효율성을 추정하기 위하여 공유될 것이다.

민주화에서 있어서 지도적인 역할을 한 한국이 이 노력에 참가하여서 민주화과정에 기여하길 희망한다. 만약 모범적인 민주주의의 지도자들이 세계의 한 부분에서의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한 이러한 노력에서 지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수치스러울 것이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번 회의는 한국과 다른 아시아국가 사이의 밀접한 협조를 알리는 것이 될 것이다.

지 순 후안

아시아에서의 개혁과 민주주의를 위한 동맹(ARDA), 회장  
싱가포르 민주정당의 사무총장

# VIOLATIONS OF HUMAN RIGHTS IN SINGAPORE

Dr. Chee Soon Juan

Singapore Democratic Party, Secretary-General

'I didn't know it was that bad' is the typical response I get from foreigners after they hear about the political situation in Singapore. When one talks about Singapore, repression and fear are not the mental images that readily come to mind. Anyone having the pleasure of traipsing through the world's most beautiful airport showcasing all that is clean and efficient on the island would find it hard to believe the extent of authoritarian control in this country.

And yet the city-state, sandwiched tightly between the Indonesian archipelago to the south and the Malaysian peninsular to the north, is one of the most democratically challenged societies in Asia. The methods of control and intimidation that the ruling People's Action Party (PAP) employs is the subject of discussion in this chapter.

## GETTING RID OF THE OPPOSITION

Let's begin with the Internal Security Act (ISA). Introduced by the British during the colonial years the ISA, or the Preservation of Public Security Ordinance as it was then called, allows the government to arbitrarily arrest and indefinitely detain citizens it suspects of endangering public security.

Armed with such immense powers, governments would be sorely tempted to apply them on the opposition. The PAP, of course, found the temptation too hard to resist and in February 1963 ordered the arrest of more than 150 opposition members of parliament, newspaper editors, labour leaders, and other political activists. Many, if not all, of those arrested were never charged of a crime but were nevertheless consigned to serve prison sentences, some of which lasted up to two decades.

The longest serving-detainee was Chia Thye Poh. On one fateful day in 1966, security agents visited Chia and told him that he was being arrested under the ISA. With that the opposition MP was led away and locked up for the next 23 years. After his release, he was banished to an island south of Singapore for another nine years, allowed to come to the mainland only during daylight hours.

The use of the ISA continued throughout the 1960s and 70s. One of the detainees arrested in 1963, Poh Soo Kai, was released in 1972 whereupon he embarked on a campaign to call attention to the ISA. As a result the Socialist International, of which the PAP was a member, moved to expel the party from its ranks. Pre-empting the unceremonious boot it was about to receive, the PAP quit the organisation in 1976. One week after the episode, Poh was re-arrested. He was released six years later, during which he spent two years in solitary confinement.

In 1987,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had arrested and detained 22 individuals for conspiring to 'violently overthrow' the government and establish a Marxist state. It turned out that some of those arrested had been helping an opposition party while others were Catholic Church workers helping the poor and still others who were lawyers assisting abused foreign maids working in Singapore. After more than a year of imprisonment during which punches, slaps, sleep deprivation and other forms of torture were dished out in liberal helpings, the detainees were forced to confess to their waywardness.

Upon their release, some of the detainees got together and issued a press statement to proclaim their innocence and to reject the government's claim that they were not subjected to torture and abuse. They were promptly re-arrested and made to swear statutory declarations to repudiate their press statement in order to regain their freedom. Any attempt to refute the government again would result in the detainees being prosecuted in a court of law for making false statutory declarations.

More recently, 37 persons have been imprisoned under the ISA for allegedly being involved in terrorist networks and plotting to attack US interests in Singapore, following the September 11 tragedy. A few have since been released but the majority remain in custody without trial.

#### THE MEDIA PROBLEM

Of course, none of the above would have been possible without the concomitant subjugation of the media. Soon after it came into power in 1959, the PAP started its campaign to rid Singapore of a free media.

In 2004, a US citizen employed by the newspaper as its global affairs columnist, had this to say when he resigned from the newspaper company:

The Straits Times has no competition in Singapore. It's owned wholly by a company called Singapore Press Holdings, whose stock is sold publicly but whose affairs are closely monitored by the government of Prime Minister Lee Hsien Loong, son of Singapore's founding father, former prime minister Lee Kuan Yew. The paper is run by editors with virtually no background in journalism. For example, my direct editor was Ms Chua Lee Hoong, a woman in her mid 30s. She was an intelligence officer. Other key editors are drawn from Singapore's bureaucracies and state security services. They all retain connections to the state's intelligence services, which track everyone and everything.

Presently Singapore's local print media is run by the Singapore Press Holdings and MediaCorp, two companies under the directly control of the state.

The broadcast media's history is less eventful it came firmly under government control from the outset.

Having successfully dragged the local media through obedience school, the Singapore Government started work on the foreign press. One by one, regional and international publications which commented unfavourably of the PAP and its politics were taken to court in expensive defamation suits or criminally prosecuted. Asiaweek, Far Eastern Economic Review (both defunct), Asian Wall Street Journal, Time,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The Economist, and Newsweek all met with such fate. Other punitive actions taken against the offending publications included restriction of their circulations in Singapore.

In 1999, I did a few interviews with broadcasters such as CNBC, CNN and Reuters. Shortly after these interviews, the Government issued a warning that foreign TV stations that broadcast from Singapore had to abide by the same rules and standards that governed the Singapore station. This was, of course, a reference to my speaking in public without government approval, a matter which I will discuss at length below.

Shortly thereafter the government amended the Singapore Broadcasting Act to enable it to prosecute foreign broadcasters, as it does with the international press, for 'engaging in the domestic politics of Singapore.'

Since then, there have been almost no interviews with Singapore's pro-democracy activists or reports on Singapore's politics from foreign broadcasting stations.

The actions against the media in Singapore has resulted in international media watch groups criticizing the PAP for its continued suppression of the media. Reporters Without Borders (RWB) placed Singapore 147th out of 167 countries in its annual survey measuring governments on their respect for press freedom, which is 'by far the lowest ranking of any developed country in the annual ranking and just one notch above Iraq and 18 above Myanmar.'

In fact, RWB gave the former prime minister, Goh Chok Tong, the 'Predator of Press Freedom' award for his role in the government's continued suppression of press freedom together with the likes of Muammar Gaddafi, Robert Mugabe, Kim Jong-Il, and Fidel Castro. Another media group, the Committee to Protect Journalists, wrote:

State control of the media in Singapore is so complete that few dare to challenge the system and there is no longer much need to arrest or even harass journalists. Even foreign correspondents have learned to be cautious when reporting on Singapore, since the government has frequently hauled the international press into court to face lengthy and expensive libel suits.

## VOTING FOR AUTOCRACY?

The PAP has won every election since it first came into power in 1959. When the opposition boycotted parliament in 1968 because the government refused to hold parliamentary sittings for more than a year, the ruling party seized the opportunity and engineered elections such that for the whole of the 1970s there was no opposition in the house. Presently there are only two opposition MPs in a house of 84.

There is no independent elections commission; the Elections Department works from under the Prime Minister's Office. The campaign period lasts for all of nine days. Electoral boundaries were announced one day before the elections were called in 1997. In 2001, voters were given stock-market shares by the government which they could convert to cash on the eve of polling.

All this has resulted in the fact that in the past few elections, the opposition has not been able to field candidates in more than half of the seats, thereby allowing the PAP to return to power even before the first vote is cast. Freedom House summed it up best when it wrote: 'Citizens of Singapore cannot change their government democratically.'

One factor that makes Singaporeans so fearful of taking part in elections is the use of libel laws by the PAP. The judiciary is seen by many to be partial to the ruling party. Several opposition leaders have been rendered bankrupts when they have been unable to pay the millions of dollars in damages following defamation lawsuits taken out by PAP leaders.

Veteran oppositionist, Joshua B. Jeyaretnam, has paid more than a million dollars to Lee Kuan Yew and other PAP litigants. A former judge, Jeyaretnam had to sell his houses and almost all his possessions to make good on the payments. In January 2001, he was declared bankrupt because he could not pay the hundreds of thousands of dollars he still owed his opponents. Under the law he will lose his seat in parliament and be barred from future elections.

Tang Liang Hong, a successful corporate lawyer and an opposition candidate in the 1997 elections, was sued for defamation for remarks he made about PAP leaders during a public rally. Following the elections, Tang fled the country.

In 2001, Lee Kuan Yew and Goh Chok Tong sued me for defamation for raising questions about Singapore's secretive loan to the Suharto regime in 1997 just before he was toppled. The courts then refused to allow me to engage foreign lawyers in the form of Queen's Counsels (QC), even though I had indicated that I could not find a local lawyer to represent me and that Lee and Goh had engaged a Senior Counsel (Singapore's equivalent of the QC) to act for them. The case was subsequently awarded to the plaintiffs in a summary judgment which meant that I was not given an open trial to defend myself and call for witnesses. At the time of writing this chapter, the plaintiffs have asked for no less than US\$500,000 in damages.

This was not the first suit brought against me. In 1993 when I was sacked from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three months after I joined the opposition and contested in an election, I was also sued for defamation by my head of department, who was a PAP MP, for saying that my dismissal was politically motivated. The amount of costs and damages awarded was approximately US\$300,000.

Such a scenario has prompted the international legal community to remark about the judiciary in Singapore:

Civil defamation suits are being misused by the Executive to intimidate and deter those Singaporeans holding dissenting views. Amnesty International

[Defamation lawsuits have] done little to overcome the courts' reputation as improperly compliant to the interests of the country's ruling People's Action Party. International Commission of Jurists

What emerges is a government that has been willing to decimate the rule of law for the benefit of its political interests. Lawyers have been cowed to passivity, judges are kept on a short leash, and the law has been manipulated so that gaping holes exist in the system of restraints on government action toward the individual. New York City Bar Association

#### LABOUR PAINS

Since 1960s when the government used the ISA to imprison labour activists, the PAP has launched a relentless campaign against trade unions. There is no legislation requiring



minimum wage in Singapore and retrenchment entitlements for laid-off workers. As a result Singaporean workers, especially those employed in manual labour, are relatively among the worst paid in the world. The median wage of an office cleaner or driver, adjusted for productivity, 'is among the lowest in 59 countries worldwide.' Only Russia, the Ukraine, and Ecuador are paid less. Secretaries don't do much better; their wages rank 50th among the 59 countries.

All this takes place in country where ministers help themselves to salaries that are the highest in the world a cabinet minister earns more than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prime minister of Singapore's salary is higher than that of the president of the US, prime minister of the UK, president of France, prime minister of Italy, and chancellor of Germany combined!

#### CURTAILING FREEDOMS

Lee Kuan Yew insists that allowing citizens to freely gather and speak would result in pandemonium. As a consequence, gatherings of any sort in a public place are prohibited: Six protestors who had wanted to gather outside the US embassy in Singapore were arrested before they could even make their way to the venue, a forum to discuss the situation on Burma among Asian activists was banned, an application to stage a march to mark the UN International Day for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 was rejected, a request for a protest against Singapore's media by a local NGO, Think Centre, was denied, a forum to discuss homosexual issues was disallowed, and so on.

In 1999, I had stood in the middle of Raffles Place (the heart of Singapore's Central Business District) at lunchtime and addressed a crowd. I repeated the event the following week. I was prosecuted for both acts and jailed. In 2002 I attempted to hold a May Day rally outside the Istana, the president's official residential and prime minister's office. A bunch of police officers were on hand to greet me and hauled me away before I could begin my speech. I was again prosecuted and jailed for five weeks.

Not only are citizens prohibited from organizing meetings in public places, they are also not allowed to produce, distribute or exhibit any film, video recording, or material with visual moving pictures that have a political end to them.

Singaporeans are too fearful to give financial support openly. The already constricted space within which political society operates has thus been tightened further.

#### CLOSING OFF THE INTERNET

Much has been made about the use of the Internet as a liberating force within authoritarian systems. The ease with which transfer of information through the electronic medium occurs makes it extremely difficult, if not impossible, for governments to exercise censorship effectively.

In 1996, the government stipulated that political parties, religious groups, and other organisations that wanted to put up their own websites needed to first obtain a permit from the Singapore Broadcasting Authority (SBA), ostensibly because it wanted to prevent 'objectionable content' from entering cyberspace. The operative term, 'objectionable,' was deliberately left undefined, to allow the state to determine what is and is not fit for public consumption. An opportunity came during the general elections at the end of 1996, during which the SDP used its website to post information and biographical data about its candidates. The party immediately received a letter from the SBA demanding the removal of the offending Web pages. In 2001,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introduce new regulations to 'guide responsible use' of the Internet by political parties during elections.

From time to time, expressions of anxiety surface about the possibility that the government tracks the activities of Internet users, especially on newsgroups and chat rooms. These messages 'warn' other users that the authors have been questioned and harassed by the authorities for posting critical comments or providing damaging information about the government. The veracity of such messages is difficult to ascertain. Even the motive must be questioned the authors could be pro-establishment individuals or groups intending to sow fear in the Internet community, thereby promoting greater self-censorship.

In 2003, the police raided the homes of two Internet activists and confiscated their computers files. Mohd. Zulfikar and Robert Ho had separately posted articles about Lee Kuan Yew and the appointment of his family members to key posts in government-run businesses. The police later announced that Zulfikar was under investigation for criminal

defamation, an offence that carries a sentence of up to two years' imprisonment<sup>41</sup>  
Zulfikar left the country, seeking political refuge in Australia.<sup>42</sup>

## CONCLUSION

One of the main reasons why Singapore does not show up more significantly or frequently o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radar-screen is because of the PAP's well-developed public relations campaign. Another reason is because it is hard to believe that a city as technologically modern as Singapore can be so primitive in its political development. An Asian human rights organization described:

Few States fly as far und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s human rights radar as Singapore. A prosperous, in many ways Western-style nation, Singapore is barely mentioned at the United Nations Commission on Human Rights. Occasional references to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the death penalty aside, the Singaporean delegation sit smugly while their Asian neighbours face a barrage of NGO, and often State, criticism. Singapore is no better than its neighbours in many ways, it's worse. It is the Cuba of Asia (but without the crushing poverty or damaging economic sanctions). Indeed, Singapore enjoys Western-style economic prosperity. There can be no argument flawed, as it is that civil and political rights cannot be afforded in Singapore. Denials of civil and political rights in Singapore are simply of governmental policy.<sup>43</sup>

Whatever the cause, it remains essential tha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pays more attention to the situation in the island-republic. Developing countries, especially those with autocratic leaders, increasingly view Singapore as a model where modernisation can take place without any serious disruption to authoritarian control. China's leaders, for example, are big admirers of the Singapore Way. The thinking is based on the age-old concept of keeping the people's stomachs full and heads empty. If citizens are kept busy trying to make money they will have little time to do anything else, including getting active in politics.

The economic cracks are only starting to appear in Singapore. If the country is to avoid some of the grief that have befallen other countries, it is wise that we in Singapore and those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make greater effort to remedy the political deficiency and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city-state.

## 'Towards Promoting & Deepening Asian Democracy – Analysis on its Weakness and Challenges'

To be sure there have not been few conferences where the theme is how to promote democracy in Asia. Many ideas and suggestions have been canvassed. Unfortunately, there has not been much follow-up action. Concrete action on how to bring about or consolidate democracy in Asian countries has been rather lacking. The strength of democracy in Asia is only as strong as the democracies in the individual Asian countries. Therefore, any discussion on regional democracy must necessarily into helping individual countries democratise.

This is where regional networking crucial. Singly, there is little that each country can do to promote democracy on large scale. Collectively, however (such as this conference), from around the region can the synergy from working together. The pooling of resources also boost our efforts. This end, the Alliance for Reform and Democracy in Asia (ARDA), a regional grouping of democratic-minded Asians, has taken several initiatives to work regional well as programs.

Even then, the of the task at hand, no one organisation can hope to be successful in bringing about by working alone. Collaboration with sister networks and organisations is essential. To this end, ARDA has gotten together with the Taiwan Foundation for Democracy, Alternative Asean, Initiatives for Dialogue, and Forum Asia Democracy to organise the World Forum for Democratisation in Asia (WFDA) to be held in Taipei in August 2005. The WFDA, unlike many other conferences, will focus on coming up with concrete projects that will be conducted in the various Asian countries. Resources will be coordinated and allocated to best achieve the goals set out in the conference. Activities will be tracked to measure their feasibility and effectiveness for future planning.

It is hoped that Korea being such a leading light in will join in the effort and contribute to the process. Indeed it would be a shame if its numerous and illustrious democratic leaders not play a leadership role into democracy in part of the world. It is hoped that this conference will signal closer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other Asians in this regard.

Chee Soon Juan

Chairman, Alliance for Reform and Democracy in Asia

Secretary-General, Singapore Democratic

